

## 후두개곡에 발생한 혈관근육지방종 1예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이상열 · 김덕수 · 장규호 · 김정규

= Abstract =

### Angiomyolipoma of the Vallecula : A Case Report

Sang Youl Lee, MD, Deok Su Kim, MD, Gyu Ho Jang, MD, Jeong Kyu Kim, MD

Department of Otolaryngology-Head and Neck Surgery, School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Angiomyolipoma is a benign tumor that is composed of adipose tissue, blood vessels and smooth muscle. The kidney is the most common location of this tumor. In the larynx, angiomyolipoma has been rarely reported in the literature. We describe the patient of 64-year-old male with an angiomyolipoma arising from the vallecula. The tumor had a smooth surface with numerous small vessels and showed heterogeneous contrast enhancement on CT. The tumor was not adhesive to surrounding tissue and was completely removed by laryngomicrosurgery with CO<sub>2</sub> laser. Microscopically, the tumor is composed of mature adipose tissue, tortuous thick walled blood vessels and thick bundles of smooth muscle.

KEY WORDS : Angiomyolipoma · Vallecula · Larynx.

### 서 론

혈관근육지방종(angiomylipoma)은 평활근, 지방세포 및 혈관 등으로 구성된 양성 종양이다.<sup>1)</sup> 신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며 신장에 발생하는 경우 약 50%에서 결절성 경화증의 증상이 동반되었으며, 결절성 경화증 환자의 약 80%에서 혈관근육지방종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up>2)</sup> 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발견되며 다음으로는 심장, 종격동, 정삭(spermatic cord), 질벽, 나팔관, 구강, 인두, 비강, 피부에서 드물게 발견되어 보고되었다.<sup>3)</sup> 후두에서 발견된 경우는 국내외에서 약 5예가 보고되어 있다.<sup>2,4-7)</sup> 저자들은 특이 호소 증상 없이 우연히 발견된 후두개곡에 발생한 혈관근육지방종 1예를 치험하여 문헌 고찰과 함께 보고하고자 한다.

### 증 례

64세 남자가 1차 병원에서 우연히 발견된 후두개곡 부위의 종물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과거력 상 고혈압 외에 특이 사항은 없었다. 특이 호소 증상은 없었으며 외래에서 시행한 후두경 검사에서 설근부와 후두개 사이의 후두개곡에 종물이 관찰되었다(Fig. 1). 종물의 표면은 정상 점막에 작은 혈관들이 관찰되었고, 목이 있는지 여부(pedunculated or sessile)는 명확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인후두부 및 비강, 경부 등에서 특이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경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종물은 2.7 cm 크기로 비교적 분명한 경계를 보였으나 둘레의 1/3 정도가 설근부와 접촉한 양상이었고, 불균일한 조영 증강과 주변에 확장된 혈관이 관찰되었다. 경부의 림프절 종대 등 기타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종물의 제거 및 조직학적 검사를 위하여 전신마취 하에 CO<sub>2</sub> 레이저를 이용한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직접후두경을 종물과 설근부 사이로 삽입하니 종물과 설근부의 경계가 뚜렷이 관찰되었다. 종물은 주변조직과 유착이 없었고, 설근부 접촉부분을 먼저 분리한 다음에 나머지 후두개 앞쪽과의 접촉부분을 분리하여 완전히 절제할 수 있었다. 종

Received : August 25,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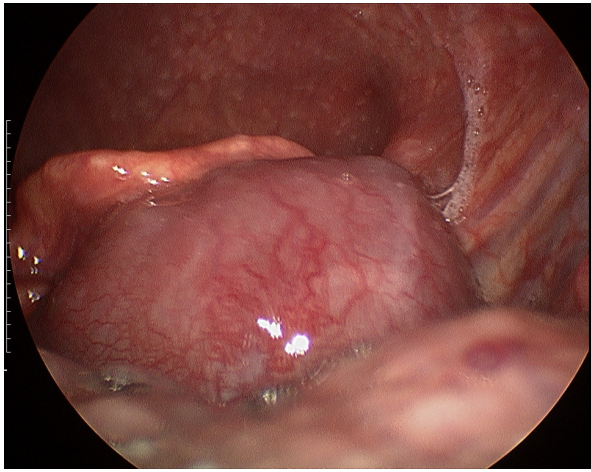
Accepted : September 21, 2015

교신저자 : 김정규, 42472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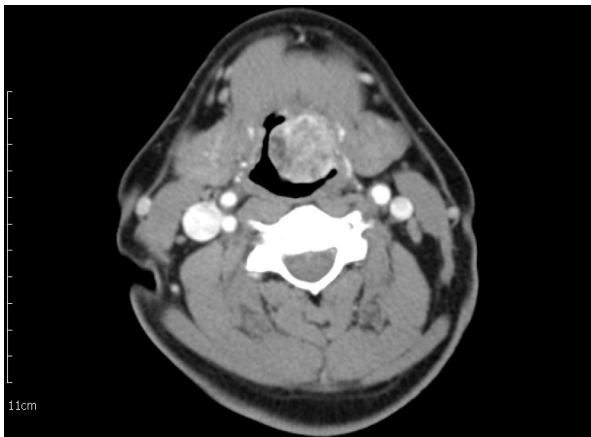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전화 : (053) 650-4071 · 전송 : (053) 650-45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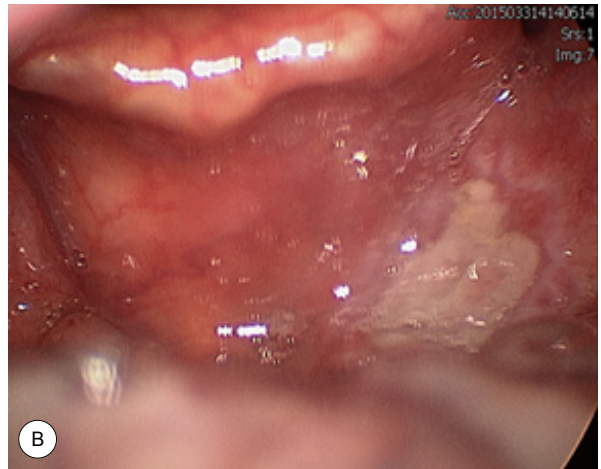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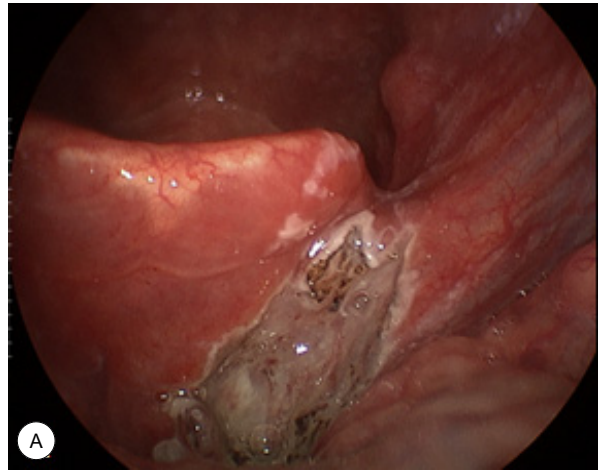
E-mail : doctorjkkim@c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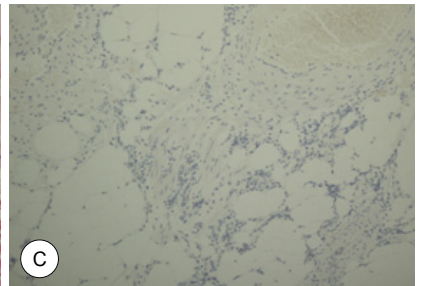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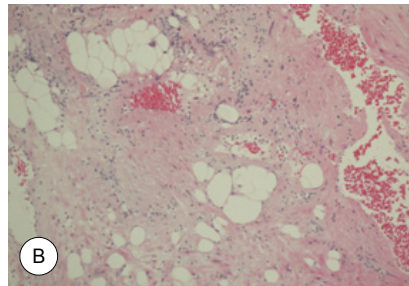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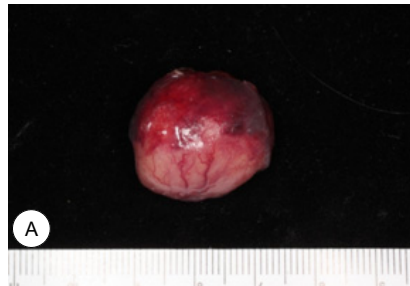
**Fig. 1.** Preoperative laryngoscopic finding. The tumor has smooth mucosal surface with numerous small vessels.



**Fig. 2.** Axial computed tomographic view. The 2.7 cm-sized tumor was heterogeneously enhanced with contrast. The tumor was contacting with the base of tongue.



**Fig. 3.** Postoperative laryngoscopic findings. The operative wound is recovering without any events on 1 day(A) and 14 days(B) after surgery.



**Fig. 4.** Gross and histopathologic finding. The tumor had no adhesion with surrounding tissue and was completely removed(A). The tumor was composed of mature adipose tissue, tortuous thick walled blood vessels and thick bundles of smooth muscle(H&E, X100)(B). HMB-45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was negative(C).

물 주변에 작은 혈관이 많이 있었으나 전기소작술로 지혈이 되었다(Fig. 3A). 적출된 종물은 열은 붉은색이고 타원형이며 2.4×2×1.6 cm 크기였다(Fig. 4A). 조직검사 상 성숙한 지방 조직, 두꺼운 벽을 가진 혈관 및 평활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혈관근육지방종으로 합당한 조직 소견이었고(Fig. 4B), HMB-45 면역조직화학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Fig. 4C).

환자는 수술 후 1일 간 경과 관찰하였으나 출혈 등 수술 부작용 없어 퇴원하였다. 수술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과 관찰 위해 시행한 외래 진료 상 재발의 소견은 없었다.

## 고 찰

혈관근육지방종은 조직학적으로 평활근 섬유, 성숙한

지방세포 및 두꺼운 벽을 가진 혈관 등으로 구성된 양성종양이며, 주로 여성에서 호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4)</sup> 일반적으로 신장 또는 간에서 발생한 혈관근육지방종은 면역화학염색에서 근육세포항원과 HMB(human melanoma black)-45가 상호작용 하며 이러한 특징이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다.<sup>5)</sup> 그러나 신장 및 간에서 발견된 경우와 다르게 피부, 비강 및 구강에 발생하는 경우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첫째로 후두에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신장에서 발견된 경우와 다르게 남성의 경우가 여성보다 많았다. 둘째로 결절성 경화증의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는 보고되지 않았다. 셋째로 크기도 신장 및 간에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작아서 대부분 4 cm 이하이다. 마지막으로 HMB-45 양성인 상피모양세포를 포함하지 않으며 성숙평활근세포만 가지기 때문에 HMB-45 염색에서 음성의 결과를 보인다.<sup>2,4-7)</sup> 본 증례 역시 남성이었고, 결절성 경화증의 증상이 동반되지 않았으며, 크기는 2.4 cm로 확인되었다. 이번 증례에서 H&E 염색으로 저명한 혈관근육지방종의 특징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HMB-45 면역염색에서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후두에 발생하는 혈관근육지방종은 무증상인 경우도 있으며, 종양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증상으로는 호흡곤란, 발성장애, 연하곤란, 연하통, 코골이 등이 있을 수 있다.<sup>4)</sup> 본 증례에선 무증상이었으며 1차 병원 진료 중 우연히 발견된 경우이다. 종양의 위치가 후두개곡 위치였으며 크기가 비교적 작아 특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증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보고된 후두의 혈관근육지방종은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상 경계가 분명하고 불균일하게 조영 증강되는 양상을 보이는 공통점을 확인하였다.<sup>2,5,6)</sup>

감별해야 할 질환으로는 섬유육종, 혈관평활근종, 횡문근육종, 악성흑색종, 섬유지방종, 총상신경섬유종, 혈관평활근종, 혈관지방종 등이 있다. 혈관평활근종은 풍부한 혈관과 평활근을 포함하는 점에서 비슷하나 지방세포 발현에 의해 감별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지방세포가 발현한 경우가 있어 감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혈관지방종은 혈관과 지방으로 이루어진 점에서 혈관근육지방종과 비슷하나, 평활근이 없는 점에서 감별된다.<sup>8)</sup>

신장의 혈관근육지방종은 침습적이며 국소적 림프절 침

범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신장 외의 혈관근육지방종은 경계가 분명한 경우가 많아 외과적 절제로 쉽게 치료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외과적 절제가 우선시되며, 수술적 방법으로 어려울 경우 색전술 등의 치료가 도움이 된다.<sup>9)</sup> 본 증례는 후두경 및 경부 전산화 단층촬영 검사에서 종물의 주변조직의 침습여부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지만 실제 수술 중 유착소견이 없어 완전절제가 가능하였다. 현재까지 보고된 후두에서 발생한 혈관근육지방종의 경우 재발한 경우는 없었으며,<sup>2,4-7)</sup> 본례의 경우에도 수술 후 5개월이 지났으나 재발된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중심 단어 :** 혈관근육지방종 · 후두개곡 · 후두.

## References

- 1) Argenyi ZB, Piette WW, Goeken JA. *Cutaneous angiomylipoma. A light-microscopic, immunohistochemical, and electron-microscopic study. Am J Dermatopathol.* 1991; 13(5):497-502.
- 2) Stodulski D, Stankiewicz C, Rzepko R, Kowalska B. *Angiomylipoma of the larynx: case report. Eur Arch Otorhinolaryngol.* 2007;264(1):89-92.
- 3) Piattelli A, Fioroni M, Rubini C, Fiera E. *Angiomylipoma of the palate. Report of a case. Oral Oncol* 2001;37(3):323-325.
- 4) Eyigor H, Suren D, Osma U, Sezer C, Yilmaz MD. *A case of angiomylipoma rarely located in the larynx. Case Rep Otolaryngol.* 2011;2011:427074.
- 5) Park JJ, Choi SM, Yoon SW, Kim EK. *A Case of Angiomylipoma Originated in Larynx. Korean J Otolaryngol-Head Neck Surg.* 2007;50(3):278-280.
- 6) Durgun Y, Firat C, Miman MC, Kirimlioglu H. *A rare benign laryngeal tumor: angiomylipoma. J Craniofac Surg.* 2010;21(6):1956-1957.
- 7) Bandhlish A, Leon Barnes E, Rabban JT, McHugh JB. *Perivascular epithelioid cell tumors (PEComas) of the head and neck: report of three cases and review of the literature. Head Neck Pathol.* 2011;5(3):233-240.
- 8) Park WK, Kang MS, Park SK. *A Case of Angiomylipoma of the Nasal Cavity. Korean J Otorhinolaryngol-Head Neck Surg.* 2013;56(6):383-385.
- 9) Ito M, Sugamura Y, Ikari H, Sekine I. *Angiomylipoma of the lung. Arch Pathol Lab Med.* 1998;122(11):1023-1025.